

2026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정시모집 적성 · 인성면접

[의과대학]

제시문 [1]

- * 친구와 함께 길을 걷다가 동전 던지기 게임을 보게 되었다. 아무런 장치도 없는 평범한 동전이었는데, 누군가가 동전 앞면이 10번 연속으로 나오는 것을 정확히 맞혔다. 그러자 친구는 “이제는 뒷면이 나올 차례야”라고 말했다.
- *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한 승객을 보았다. 그 승객은 두꺼운 고전 문학책을 읽고 있었고, 가방에는 문학 동호회 배지가 달려 있었다. 나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 사람은 100% 문학 전공자다. 공대생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다.

제시문 [2]

저희 병원은 환자분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첨단 스마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병실의 벽은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전면 특수 강화 유리를 도입해서 사각지대를 없앴습니다. 기본 상태는 투명 모드이며, 필요시 최대 10분간 불투명·방음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0분이 지나면 환자의 안전을 위해 시스템이 자동으로 투명 모드로 복귀합니다.

치료·검사실 이동은 감염 차단을 위해 투명 돔이 장착된 자율주행 침대를 사용합니다. 뚜껑을 닫으면 외부 공기 및 소음까지 완벽히 차단되어 무균 상태가 유지됩니다. 주행 중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에서만 덮개를 열 수 있는 잠금장치를 적용했습니다.

식사는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매 끼니마다 필수 영양소만을 압축한 3D 큐브 형태로 제공합니다. 이 식사는 AI가 염분과 당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별도의 씹는 운동 없이도 체온에서 즉시 용해됩니다.

제시문 [3]

삼대에 걸쳐 도자기를 빚어 온 집안의 장인이 있었다. 그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아니었지만, 그의 도자기는 다채롭고 견고한 디자인으로 인정받아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 장인은 아무리 주문이 밀려있어도, 흙을 고르는 일부터 가마에서 굽는 과정까지 직접 꼼꼼하게 작업했다.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는 완성된 도자기를 보며 큰 희열과 자부심을 느꼈다.

하지만 산업이 발전하면서, 화려하게 장식된 도자기들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다. 금강, 꽃무늬, 프린팅 기법이 적용된 도자기들은 아름다우면서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다. 이러한 대량 생산 도자기가 유행을 타자, 장인의 수제 도자기를 찾는 사람은 점차 줄어들었고, 공방 운영까지 어려워졌다. 결국 적자가 계속되자 장인의 가족들은 생계 문제로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제시문 [4]

A국 사회에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에게 사과하면 ‘법적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로 인해 가해자가 인간적인 유감을 표하고 싶어도 침묵하게 되고, 결국 감정 싸움이 격해져 소송이 장기화 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이에 A국은 사과의 법적 효력과 한계를 명확히 하는 ‘사과법 (Apology law)’을 제정했다. 이 법의 핵심은, 분쟁 당사자가 한 사과나 후회의 표현을 법적 책임의 인정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를 민사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데 있다.

제시문 [5]

다음은 금전적 보상(incentive)이 금연 성공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진은 온라인을 통해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할 성인 자원자 300 명을 모집하고, 이들을 무작위로 100 명씩 3 개 그룹에 배정하였다. 이후, 각 자원자에게 연구 참여를 시작할지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다. 단, 자원자에게 자신이 배정된 그룹 외 다른 그룹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그룹	프로그램 내용	배정 인원	참여 수락 인원	6개월 금연 성공 인원
A	• 금연 보조제만 제공함.	100 명	100 명	6 명
B	• 금연 보조제 제공함. • 6개월 금연 성공 시 80만 원을 지급함. • 단, 금연에 실패할 경우 보상이 제공되지 않음.	100 명	100 명	15 명
C	• 금연 보조제 제공함. • 프로그램 시작 전 15만 원을 자발적으로 예치해야 함. • 이후 6개월 금연 성공 시 예치금 15만 원을 돌려주고, 추가로 65만 원을 더 지급함. • 단, 금연에 실패하면 예치금 15만 원은 반환되지 않음	100 명	20 명	12 명

제시문 [6]

어느 부족은 고인이 사망한 후에 장례식을 치르기 전까지 시신을 방부 처리하여 집에 보관하고 산 사람처럼 대하며 생활한다. 이는 장례를 치르기 위한 막대한 비용을 모으는 기간과 맞물려 있으며, 길게는 몇 년까지 걸리기도 한다. 장례 비용을 모으는 것이 생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장례식은 며칠에 걸쳐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와 같은 분위기에서 성대하게 진행된다. 슬픔보다는 웃고 떠드는 모습이 많으며, 친척과 지인들이 부조(돼지 등)를 들고 찾아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다.

장례식의 핵심은 물소(Water Buffalo) 희생 의식이다. 물소는 고인의 영혼을 다음 세상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믿기 때문에, 재산과 다름없는 거금을 들여 가능한 만큼 많은 물소를 잡는다. 물소를 많이 잡을수록 고인이 편안하고 좋은 세상으로 갈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성대한 장례를 치른 후, 고인의 시신은 다양한 방식으로 안치된다. 이 모든 과정은 고인이 하늘로 올라가 가족을 지켜주는 조상신이 된다는 믿음에 기반한다. 장례식이 끝난 장소에는 고인을 기리는 거석(묘비와 같은 개념)이 세워지며, 이는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풍습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의 시신은 절벽을 파서 만든 동굴이나 무덤에 안치한다. 이는 시신을 동물이나 도굴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무덤 입구에는 고인의 모습을 본떠 만든 목각 인형을 세워 풍요와 안녕을 기원한다. 그리고 젖을 떼기 전에 죽은 어린아이는 흰 수액이 풍부한 큰 나무의 몸통에 구멍을 뚫어 묻는 독특한 풍습도 있다.

제시문 [7]

다음은 두 사람의 대화이다.

[사람1]

“내게 큰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죽나무라 부른다네. 큰 줄기는 울퉁불퉁해서 직선을 그리는 도구로 사용할 수 없고, 작은 가지는 꼬이고 구부러져 있어 원이나 네모꼴을 그리는 도구로 사용할 수 없다네. 그래서 길가에 서 있지만 목수가 거들떠보지도 않지. 자네가 가진 말도 크기만 하고 쓸 곳이 없으니, 사람들이 하나같이 외면하는 것이라네.”

[사람2]

“자네는 고양이나 족제비를 보지 못했는가? 매우 민첩해서 높은 곳, 낮은 곳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다가 덧이나 그물에 걸려 죽을 때가 많지. 반면에 크고 검은 소를 떠올려보게. 그 덩치가 마치 하늘에 드리운 구름과도 같지. 비록 쥐를 잡지는 못하지만,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네.

지금 자네는 이처럼 큰 나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쓸모가 없다고 고민하는데, 어쩌서 아무도 없는 광활한 들판에다 심어두고 유유자적하게 그 곁을 노닐다가 드러누워 잠을 자거나 하지는 않는가? 그 나무는 쓸모는 없지만 도끼에 찍힐 일도 없으니 무슨 괴로움이 있겠는가?”

제시문 [8]

한 손님이 대장장이를 찾아와 도끼날을 날카롭게 갈면서 도끼 전체 표면도 반짝이게 갈아 달라고 요청했다. 대장장이는 자신이 도끼를 갈고 있는 동안 손님이 솥돌의 바퀴만 돌려준다면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했다. 손님은 기꺼이 동의하고 바퀴를 돌리기 시작했다. 대장장이는 도끼의 넓은 면을 솥돌에 강하게 눌러가며 갈아 나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손님은 점점 지쳐갔고 바퀴는 점점 무거워졌다. 손님은 중간중간 바퀴 돌리기를 멈추고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았다. 도끼의 날은 날카롭게 잘 갈렸지만, 표면 전체는 아직 도끼날처럼 반짝이지는 않았다. 한참이 지나도 표면은 여전히 얼룩이 있는 상태였다. 결국 손님은 도끼를 집어 들고 표면이 조금 얼룩덜룩해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며 마무리를 요청했다. 그러자 대장장이는 표면이 반짝이도록 더 갈아야 한다며 연마를 계속하자고 말했다.

제시문 [9]

혼돈의 서사는 삶의 이야기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붕괴되는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이다. 그것은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를 이어 주던 모든 실이 끊어지고, 현재라는 소용돌이 속에 갇힌 것과 같다. 그 소용돌이는 언어와 희망, 의미를 모두 빨아들인다. 나는 질병의 고통을 표현할 단어를 찾지 못한 채,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깊은 고립에 빠진다. 혼돈의 서사 속에서 몸은 더 이상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나를 배신하고 예측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하는 낯선 존재가 된다. 이때의 이야기는 시작도, 중간도, 끝도 없이, 그저 ‘그리고 그다음에는 더 나빠졌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더 나빠졌다’라는 식의 파편적인 외침으로만 남는다.